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예언자 예레미야 - c1405 슬뤼테르 작, 샬트뢰즈드샹물 수도원(프랑스 디종)

† 오늘의 전례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 12,49-53 참조)

성당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바라서 오셨는지 물어보면,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라는 대답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사실 신앙을 통해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화는 십자가 안에 있고, 사랑의 불꽃으로 단련됨으로써 얻어집니다.

제1독서 예레 38,4-6,8-10

제2독서 히브 12,1-4

복음 루카 12,49-53

입당송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프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

화답송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불과 세례



이상국 크리슬로고 신부 | 주교좌계산성당 주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자신에게 붙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들 중에는 자신의 올바른 삶을 위해 매우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자신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망쳐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는 것들을 온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없애버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거나 물로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알면서도 실제로는 많이 망설입니다.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는 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들이 주는 세상적인 매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이 이미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신께서 짓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불은 하느님 자신이나 하느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서 4장 24절은 “주 너희 하느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시다.”라고, 예레미야 예언서 20장 9절은 “뱀속에 가두어 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른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불을 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인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 받으셔야 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나라, 즉 하느님의 뜻을 널리 선포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죽음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세상에 의해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당신께서 선포하시는 하느님의 나라와 죽음의 세례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분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열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는 자신 안에서 분열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분열되며 사회에서도 분열됩니다. 분열은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과 가족과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느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기심이나 혈연 그리고 세속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과 세례를 통해 우리의 이기심이나 지나친 욕심 같은 것에서 분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열을 통해 하느님만이 주시는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골로 3:10**



가톨릭교회교리서는 교회의 일곱 성사들 가운데 세 가지를 따로 ‘입문 성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 성사들이 신자 아닌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기초를 놓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 성사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해 교리 퀴즈 ⑮



신앙의 해 특집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가르침③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문화홍보실

지난번에 우리는 교회 일치, 곧 주 그리스도님을 믿지만 가톨릭 신앙에서 갈라져 다른 종파에 속한 이들과의 일치를 다룬 교령인 〈일치의 재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문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잘 드러내는 또 하나의 문헌이 있는데, 공의회가 선포한 세 가지 선언 중의 하나인 〈비(非)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의 근원이자 목적이신 하느님

선언은 1항에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또한 종교가 인간에게 보편적인 현상임도 지적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가? 왜,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참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죽음은 무엇이고, 죽은 뒤의 심판과 보상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저 궁극의 신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느님께서 인간을 이런 질문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진리와 선의 원천이신 하느님

하느님 섭리의 보편성을 지적하고 나서, 선언은 참으로 뜻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제2

항은 “가톨릭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교회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의 가르침이든 옳고 좋은 것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선언은 특별히 같은 신앙의 조상을 모시고 계시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언급하면서, “교회는 누구에 대해서든 모든 박해를 배격한다.”(4항)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배격함으로써가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타 종교에서도 영원한 진리의 단면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다투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또 끊임없이 선포하여야”(2항)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타 종교를 신봉하는 이들을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로 대함으로써입니다. 선언은 “이교인들 가운데에 살면서 바르게 처신”(1베드 2,12)하고 ... 힘닿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냄으로써(14) 참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15)” 가르칩니다(5항). **▶▶▶**



“그리스도교 입문은 세 가지 성사가 합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새 삶의 시작인 (), 새 삶을 견고하게 하는 (), 제자들이 당신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과 피로 양육하시는 ()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275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

사공병도 베드로 신부 | 동춘본당 보좌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들 중 근자에 와서 부정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천에서 용 난다.”입니다. 가난한 집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부를 얻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이르렀을 때를 비유해 많이 쓰던 이 속담이 왜 오늘날에 와서는 부정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학업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또 다른 폐단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하는 문치주의 국가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금의환향하는 이야기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얻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업에 있어서 더 이상 개인의 노력 만으로는 경제력으로 얻은 지식과 기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이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니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이미 옛 말이라고들 할 밖에는.

그런데 과거 우리들이 즐겨 보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을 소재로 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대개 가난하지만 심성이 곱고 성실하며 공부도 잘합니다. 이에 비해 주인공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부자들은 이기적이

고 게으르며 공부도 시원치 못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무리 그런 가난한 주인공을 핍박해도 주인공은 호쾌하게 성공을 이룹니다. 하지만 과연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성공이 단순히 공부를 잘 해서였을 뿐인가요?

진짜 인생을 꾸며진 영화나 드라마로 해석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오늘날 경제적 측면에서 기회가 덜 주어지고 학업의 우위를 빼앗겼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인성입니다. 게다가 어쩌면 오늘날 가난한 이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자들보다 지식 습득의 혜택을 못 누려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서 온 불화나 바쁜 사회 활동으로 내팽개쳐진 채 고립되어 인성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신경질적이며 병적인 오늘날 사회 속에서 나약하고 가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성공하고 또 내 자녀가 성공하는 방법은 바로 올바른 인성의 성숙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누구인가?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시편 25,12)라는 성경 말씀처럼 올바른 인성교육은 하느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아는 신앙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김민준**

남편의 꾀

옛날 어느 가정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어 입장이 난처했던 남편은 궁리 끝에 아내를 불러서 던지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보, 누가 그러는데 삶은 밤에 꿀을 발라 먹으면 위가 통통 붓는 다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대.”

아내는 얼른 시장으로 가서 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밤을 삶아서 거기에 꿀을 듬뿍 찍어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며느리가 조금 의심쩍긴 했지만 주는 대로 맛있게 잘 받아먹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돌아봐주지 않던 손자도 업어주고, 집안 청소에도 물도 길어다 주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 욕을 했는데 이제는 며느리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라 며느리를 볼 때마다 물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칭찬이 자자하신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 드렸기에 그렇게

변하셨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되었던 며느리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남편에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 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죄를 지었어요. 무엇에 씌었는지 밤을 삶아서 꿀을 발라 어머니에게 많이도 먹여드렸어요. 벌써 어머니의 위가 통통 부어서 이제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남편은 껄껄 웃으며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여보, 삶은 밤에 꿀을 찍어 먹는다고 죽기는 왜 죽어? 당신이 어머니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니깐 내가 꾀를 조금 부렸지.”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내게 사랑이 있으면 나 자신이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냅시다! **꾀**

금주의 성인



성 비오 10세 교황(8월 21일)

극도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교황님이 되신 비오 10세 성인께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고 청빈한 삶을 사랑하셨다. 성인께서는 교회의 쇄신과 재건을 위해 교회법과 성무일도를 개정하시고 쉬운 용어로 된 어린이 교리서를 마련하셨다. 특히 신자들에게는 교해성사와 영성체를 자주 하도록 권장하셨으며 어린이들이 첫영성체를 할 수 있는 연령을 앞당기는 등 성체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시어 〈성체의 교황〉이라 불리기도 한다. 성인께서는 1954년 비오 12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었다.



■ 서상돈 회장 선종 100주년 추모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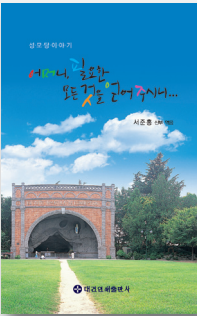


대구대교구를 위해 많은 공로를 세운 서상돈 회장 선종 100주년 추모미사가 8월 6일 (화) 오후 7시 30분 주교좌계산성당에서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영성사진 콘테스트 6월 수상작 시상



대구주보 영성사진 콘테스트 6월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8월 7일(수) 오전 11시 30분 문화홍보실에서 열렸다. 최우수상 이상순(스테파노, 도원성당) 형제, 우수상 양대원(프란치스코, 상인성당) 형제, 장려상 김민수(바오로, 성서성당) 형제에게 각각 상금과 기념 액자가 수여 되었다.



서준홍 신부님의 성모당 이야기

어려니, 귀요한
모든 것을 굳어 주시니...

서준홍(마티아) 신부님께서 대구주보에 연재하셨던 <성모당 이야기>가 마침내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교구의 역사이기도 한 성모당 이야기를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 교구 성모당 담당 053)250-3055
대건인쇄출판사 053)252-6737(판매가 : 1만 원)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18주일(8월 4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세례, 고해성사>입니다.

당첨자 : 하희정(마리아, 본리), 석광주(프란치스코, 영천), 김선미(리따, 이곡)

김미정(말가리다, 인동), 최명숙(소피아, 복자)

피서도 다녀왔으니...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8월 19일(월) 10:00 경산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8월 19일(월) 11:00 수성성당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8월 19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20일(화)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8월 19일(월) 11:00 죽도성당	바뇌기도회 월례미사	8월 22일(목) 14:00 삼덕성당

성소 | 피정

섭리기도모임(미혼 여성)

일시: 8.25(일) 14:00

장소: 성당성당 수녀원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8915-2104

젊은 여성 피정

기간: 8.23(금) 20:00~25(일) 15:00

장소: 성가소비녀회총원, 카페: 소비녀뜨락

주제: 내일을 적정하지 마라(마태 6,34)

대상: 35세 미만 / 선착순 35명

피정비: 3만 5천 원 / (010)5476-5801

2박 3일 무료 피정(작은예수회)

기간: 8.23(금)~25(일)

장소: 가평 작은예수회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테레사, (016)6460583

교육 | 모집

18차 외식사업 성공전략 심포지움

일시: 8.20(화) 14:00, 감삼동강당(무료)

내용: 스마트시대의 외식점포 경쟁력방안

대상: 외식식품경영자, 관리자, 창업예정자
문의: 대구가톨릭대 보건의료과학대학원
850-3177, www.oesikceo.com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8.23(금) 17:30~25(일)

4박 5일: 8.26(월) 14:00~30(금)

8박 9일: 10.14(월) 14:00~22(화)

에너지그램: 9.7(토) 15:30~8(일)

문의: 성심수도회, (031)946-2337~8

겨자씨 성서 한글모임 수강생 모집

기간: 8.30~11.29(매주 금) 10:00~12:00

대상: 65세 이상 교구 내 모든 신자

로서 성경말씀에 배고픈신 분

문의: 예수성심수녀회, 625-4627

장례지도사국가자격 재직계좌제(국비)

교육생 모집 (학력, 나이, 성별 무관)

기간: 8.30(금)~11.27(수), 무시험

월수금 18:30~22:30 / 일 13:00~21:00

문의: 대가대평교원, 660-5556~7

바오로딸 독서치료 행복한 책임기

일시: 9.2부터(매주 월) 14:00(10주)

장소: 공평동 시내 바오로딸 서원

주제: 자아성장, 신앙성숙, 나를 찾아서

회비: 교재포함 10주 18만 원
문의: 김에반젤리나 수녀,
(010)2658-5185

새빛학교 신입생 모집

한글(월·수·금) 개강: 9.4(수) 10:00

영어(화·목) 개강: 9.10(화) 13:00

한문(화) 개강: 9.10(화) 15:00

문의: 교무실, 476-3100(교대역)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대만 선교지 체험

기간: 10.18(금)~22(화), 대만 신주교구

접수: 9.10(화)까지, 50만 원(항공료)

대상: 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마음으로 책임기에 초대합니다

일자: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시간: 18:30~20:30(2시간 10주간)

장소: 남산동 성바오로 서원

대상: 남, 여(30대~5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 · 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미 래 필 림
건축용 열차단 / 차폐필름
안전필름 / 방범필름 / 각종시트지
나노원도우필름 대구경북 총판
홈페이지: www.nwf.co.kr
박시언 (마테오), 서문숙 (로사리아)
전화문의: 010-3374-3984
★ 필름조성물에 의한 국제특허 2건, 국내특허 1건 보유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정기(바오로) 011-514-3855

16년 경력, 보증보험가입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배임전문 인터넷 (필름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054)458-3223 수선사 010-6571-3385
리스토리컬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사랑의 청정지역 명품 김
광주 이조맛김
김·건어물·젓갈류 판매
상선(전남)가문 마면 및 바지리, 성곡리, 자모리 등 각종 단체 기증요율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광천분사: (041) 641-3838 대구지사: (053) 255-3836
농협 131-0054-3404-831 예금주 이경숙
한개래도 배송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나가사키성지순례
제 4 차 9월25일~28일(3박4일) 순례경비 59만 5천원
제 5 차 10월14일~17일(3박4일) 순례경비 80만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경대플러스정형외과
원장 손영현(프란치스코)
어깨/무릎/허리/관절 클리닉
626-5575
남대구롤러스 옆 KT&G빌딩 1F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병원~~
한영한마음이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까지
☎예약 260-7777 ☎문의 260-7575
☎서부정형학 전문시정원(구.물성정형치리)

2014학년도

베드로관(小신학교) 지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 공동체 생활
학업은 무학고등학교 재학
(경북 하양 소재)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베드로관, 854-2085

교구 성소담당, 250-3071

교육 | 모집

제6차 성경 통독 피정

기간: 8.31(토) 13:30~9.1(일) 16: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5만 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http://cafe.daum.net/biap>

대구 508-10-448845-1, 성서사도직

가톨릭 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8.28(수) 13:30~16: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주제: 부모의 신앙생활, 참가비: 5천 원

강사: 이선헌 올리안나(사회교육협의회)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2대리구 1지역 예로니모 성경대학

기간: 9.12~12.12(매주 목), 동춘성당

오후반 14:00~16:00

저녁반 20:00~21:30

강사: 박영식(야고보) 신부

내용: 요한복음, 바오로 서간,

요한 묵시록

문의: 효목성당, 754-4422

한국천주교회사 및 성지안내 봉사자 3기 수강생 모집(선착순 40명)

기간: 9.27~14.1.24(매주 금)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수강료: 20만 원

강사: 이찬우 신부, 담당: 서준홍 신부

문의: 봉사자, (010)2802-2703

2013년 2학기 신학 강좌 수강생 모집

그리스도론, 선교신학, 교회사, 동양

철학, 요한묵시록, 교리교육, 장례예

식과 연도, 생태영성, 영성, 사목현장,

신약·구약성경 과정, 신약성경 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문의: 660-5105~6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신앙의해 기념 '신앙의 빛'展

일시: 8.27(화)~9.1(일)

장소: 대백플라자 갤러리

참여작가: 김도율(요셉) 신부, 김선애

(마리아) 수녀, 김종숙(요안나), 류지

현(세바스찬)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노인심리상담사 과정: 9.3(화, 수) 14:00

웰다잉아카데미: 9.5(목, 금) 14:00

왕초보·관광영어: 9.6(금) 11:30

사범·제대꽃꽃이: 9.6(금) 11:00

문의 및 신청: 254-6115

관덕정 주관 9월 성지순례

일자: 9.15(일), 천진암 성지

신청: 8.21(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생활일본어, 천연비누·천연화장품,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대금, 리본공예, 쿼트,

POP, 초크아트, 토포인팅

문의: 476-6211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여학연수

2차: 8.25(일) (8, 12주)

3차: 9.22(일)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해외봉사인증서(학점인증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대구파티마병원 15차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신규 교육

기간: 9.5(목)~6(금)

장소: 3층 제1강의실

선착순: 30명 / 교육비: 2만 원

대구 508-10-349316-9, 장혜자

문의: 940-7059, 7415(입금 후 전화)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자부심
엄선된 최상급 식재료와 올리브유, 식물성 기름만을 고집합니다.
품격높은 비즈니스 모임, 격조높은 최고의 상견례 명소

자금상
CHINESE RESTAURANT
중화요리

대표: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요한)

예약 (053)767-6700 대구 서구 동구동 LG전원 빌딩

척추·관절 및 뇌·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디스크, 골다공증
-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질환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진전

원장/전문의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한투어

성모발현지(루르드, 파티마, 과달루페)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외 다수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밝은 세상을
아이 라식은
사랑입니다.

의학박사
현, 연세대의과교수 원장 **박중원**(소시모)

대구연세안과
☎ 053.626-8881-5

www.appleuro.com

에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해설)

범여네거리 에플타워 5층 TEL. 755-0888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여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 목
www.misoindental.com 아간진료

스피치! 모든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Speech Kim 스피치 김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 & 발표력 & 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강석 김민지(사바나)

유방 갑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